

2023년 09월 10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 가정예배순서 ♥

### ◎ 예배선언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합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91편 14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 찬 송 / 337(통363)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 성경봉독 / 욥기 34장 1~20절(구약p.793)

1.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2.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3.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4.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5.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6.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7.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마시듯 하며
8.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9.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10.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11.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12.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13.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14.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15.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16. 만일 네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17.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18.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19.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낮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20.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 ◎ 말씀선포 /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소통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 소통의 매개체는 바로 대화입니다. 서로 말을 하며 대화를 하던가 혹은 글로서 자신의 뜻을 전달하고 그 뜻을 이해함으로 관계는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를 시도하거나 혹은 글을 써서 전달해도 듣지 않고 읽지 않는다면 서로에 대한 풀리지 않는 오해는 깊어지고 답답함은 더해 갈 것입니다. 어쩌면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옴의 마음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침묵 역시 우리에게는 응답이며 그 침묵하시는 시간에도 당신의 자녀를 위해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답답하고, 괴로워하며 더욱 슬픔에 빠져들게 됩니다. 옴은 하나님이 자신의 불평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신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반드시 말씀하시는 분임을 강조합니다.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까지도 듣고 분별하여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엘리후 역시 이러한 맥락으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말씀하신다고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엘리후가 증거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다른 방법은 과연 무엇입니까? 먼저 엘리후는,

1.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심을 증거합니다.

- 본문 15~17절입니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교로써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엘리후는 사람의 꿈이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꿈과 환상을 통해 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요셉이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후에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미리 알게 하셨습니다. 사실 꿈을 꾸었던 당시에는 이것이 무엇을 알게 하시는지 잘 알지 못했지만 분명 그 꿈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교만한 죄에 빠져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어느 날 거룩한 감시자를 보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장대했던 나무가 그루터기만 남고 나머지는 들짐승들 중에 버려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 년 후에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통치하는 바벨론의 번영을 보면서 자신의 업적에 취해 교만에 빠지고 맙니다. 그는 바벨론의 참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회복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 꿈과 환상을 사용하셔서 그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러한 환상과 꿈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오늘날은 더 이상 꿈과 환상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실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며 완전한 계시인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의 양심을 깨우시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때론 개인에게 주시는 신령한 은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로지 나에게만 주시는 은혜이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깨우치고 가르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완전한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 누구도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만에 빠져 있는 우리가 회개하고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떠난 채로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 혹은 우리에게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분별하게 하실 바로 그때 지체하지 말고 속히 돌이키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받은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2.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을 통해 말씀하심을 증거합니다.

- 본문 19~22절입니다.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쭈심 of 징계를 만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삶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엘리후는 옴의 육체적 고난을 언급합니다. 옴은 뼈마디가 쭈시고 음식 먹는 것도 고통스러워서 생명이 점차 파리해져 갑니다. 마치 옴은 무덤에 다가가는 자 같고, 그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자처럼 보였습니다. 엘리후는 옴이 당하는 곤고한 상황을 나열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이 고통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말처럼 고난은 때로 하나님이 사람을 깨우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C.S.루이스의 말처럼, 고난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천로역정”을 쓴 존 번연도 인생의 깊은 고난 속에서 결국 하나님만이 자신의 최종 희망임을 발견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고난 없이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참으로 복된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없이 살다 보면 죄로 오염되고 타락한 우리의 악한 본성으로 인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지 않게 됩니다. 찾지 않을 뿐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 때때로 시련과 역경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도록 기도할 뿐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을 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 아하스는 삶이 곤고하고 상황이 악화 되어도 하나님께 더욱 범죄했습니다. 따라서 고난이 무조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고난은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때로는 초자연적 방법으로, 때로는 말씀과 상황을 통해 우리가 당신의 뜻 안에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갈망한다면 그분의 뜻에 기꺼이 순종할 것을 마음으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 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나의 믿음과 가정, 교회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 ◎ 찬 송 / 342(통395)장 너 시험을 당해

### ◎ 폐 회 / 주기도문